

기획전시(Special Exhibition): ‘설악산 그때 그 시절’ MT. SEORAK that time

박수미*

1. 전시의 개요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국립산악박물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054)에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설악산 그때 그 시절’이라는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설악산을 주제로 설악산이 개발되고, 수학여행 신혼여행지로 전성기를 누렸던 추억의 순간부터, 개척정신으로 산봉우리들을 초동했던 도전의 순간까지 설악산 그때 그 시절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도와 역사 속 설악산의 모습을 그린 프롤로그와 1부 추억의 산, 2부 도전의 산이라는 소주제로 설악산에 대한 관광과 등반이 시작되는 순간을 보여주고자 했다. 더불어 현재까지도 관광지로서 각광받는 설악산의 추억을 소환하고자 하였으며, 등산 역사에서 바라본 설악산의 역할과 사건, 구조대의 활약 등을 재조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현재 국립산악박물관 학예연구실의 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전문 산악박물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전시 등을 기획하고 있다. psm@komount.or.kr

1부 추억의 산에서는 관광지로서의 설악산을 60-80년대 다양한 기념품들과 설악제 사진들, 당시 수학여행, 신혼여행 사진들로 보여준다. 1950년대 관광버스의 등장과 미시령의 개통, 그리고 설악산을 알리기 위한 속초시만의 노력은 설악산 관광시대를 여는 서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1961년 정부의 관광사업진흥법을 발표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 시대가 열리고, 당시, 극동항공과 대한항공의 항로가 열리면서 1970년대 속초는 그야말로 관광의 시대로 국내외 여행객이 찾는 주요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다.









2부 도전의 산에서는 1955년 서울대공대 산악회의 미시령·외설악 답사를 시작으로 설악산 초 등 개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알피니즘을 구현하는 주요 장소로 활용되었다. 동계 대청봉, 토왕폭빙벽, 범봉, 북능 등 설악산의 빙벽 암벽을 개척해나갔던 산악인들의 기록과 사고와 구조대, 대피소 등 설악산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감상할 수 있다.

2. 전시의 구성

이번 기획 전시에 소개된 설악산 관련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유물명	설명	연도/사이즈
1		설악산관광화첩	설악산 최초 관광 사진집이다. 1958년 4월 15일 설악산관광화첩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다. 발행인은 이달영, 편집 및 촬영은 최구현이며, 발행소는 설악산관광협회이다. 외국인들에게 설악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진 설명을 한글, 영문으로 기재하고 있다. 외설악과 내설악의 주요 봉우리와 계곡, 사찰, 폭포 등이 소개되어 있다.	1958 36×26cm

2		외설악안내도	전국스텝프사 발행 외설악 안내도이다. 한쪽면에는 안내지도가 반대편에는 신흥사, 낙산사, 설악산 울산바위 등 명소의 설명이 담겨있다.	현대 (접지시) 9.5×19.5cm, (펼침시) 54×19.5cm
3		국립공원 설악산 수학여행 기념 배너	-	1983년 16×25cm
4		도서 '산 찾아 물 따라'	시조시인이자 산악인인 노산 이은상의 글을 엮은 책으로, 설악행각이 수록되어있다. 설악행각은 1933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동안 설악산을 탐사하고 적은 기행문이다. 당시 동아일보에 연재되었고 추후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은상은 길을 안내할 심마니, 포수 등 15명의 일행과 함께 12선녀탕, 안산, 한계산성, 대승폭포, 봉정암, 대청봉, 마등령 등을 탐사하였다. 이후 이 기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설악산이 개방되었을 때, 산악인들은 설악행각을 가지고 설악산을 답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66년 15x21cm
5		설피	설피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이동시 발이 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발 위에 신고 다니는 덧신이다. 예로부터 겨울 등산에 꼭 필요한 용품으로 사용하였다.	광복이후 (좌)24×36cm (우)28×36cm
6		서울대학교문리대 산악회 설악산 북주능선 등반 계획표	서울대학교문리대산악회는 1971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북주능(진부령-마산-신선봉-미시령-저항령-마등령-회운각-청봉-천불동계곡)을 초등하였다.	1971 19x26cm
7		서울대학교문리대 산악회 적설기 설악북주능 초등보고서	서울대학교문리대산악회는 1971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북주능(진부령-마산-신선봉-미시령-저항령-마등령-회운각-청봉-천불동계곡)을 초등하였다.	1971 19x26cm

3. 국립산악박물관 안내

국립산악박물관은 산림청이 건립하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 산악박물관이다. 박물관은 2014년 개관 이후, 우리나라 등산 역사-문화와 등반 기록을 재조명하고, 역사-문화 사료 보존과 산악문화 유산의 전승 및 산악문화 향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악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산행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국립산악박물관〉의 이력

- 2014. 11. 08. 국립산악박물관 개관
- 2015. 11. 03. 1종 전문박물관 등록
- 2021. 01. 0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평가 우수 인증
- 2022. 12. 누적 관람객 91만 명 돌파
- 2015 ~ 2023 조선 후기 산악 향유의 역사 특별전 〈산에 들다〉, 산악인의 도전정신과 동료애에 대한 기획전 〈로프, 카라비너, 동료〉 등 16건의 산악 역사-문화 기획전시 개최